민주, 支 수사 당 차원 대응…이재명, 8일 평산마을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고위서 대책기구 구성 논의…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강력 비판

"국민 외면 정치보복에만 혈안…檢, 법앞의 평등 김 여사만 비켜가"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와 관련해 "치졸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책기구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관련한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기구 구성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표도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데 이어 비공개 회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오는 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난 뒤,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다.

이날도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도는 마당에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휴대전화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 한다"며 "만인이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 여사만 예외"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전형적인 망신 주기로,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면서 "이런다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우울증이 염려된다. 현실 부정이 전형적인 그 초기증상"이라며 "현 대통령의 부인은 황제 조사를 한 뒤 무혐의 결정을 하더니,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조사를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부정을 넘어 판타지 중독"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국혁신당 "민주, 10월 재보궐 단일화 하자"

부산 금정구·인천 강화군 제안

조국혁신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에 "10·16 재·보궐선거 지역 중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정구는 역대 8번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7번 이긴 진보진영의 험지이지만, 여야 간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겠다"며 "혁신당 류제성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야권의 단일후보라고 확신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류 후보를 영입하고 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인천 강화군수 보선에서는 혁신당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춘생 "광주트라우마센터, 전액 국비 지원돼야"

국립시설이지만, 운영비 중 50%를 지방비로 분담하고 있는 광주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 예산 정부 전액 지원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광주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2일 상정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트라우마센터 예산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정 의원은 "트라우마센터의 이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예산 및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부당한 국가권력에 희생된 국민을 위한 치유 기관인 만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라우마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인원은 연평균 500명씩 늘고 있지만, 센터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센터 등록 회원의 60%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및 여순사건, 부마항쟁, 간첩조작사건 등 전국단위 피해자들이다. 이에 광주센터의 경우 고령의 피해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치료서비스'를 개발해야 함에도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광주와 제주 트라우마 센터의 등록자 수는 연평균 500명씩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기준 광주 센터의 운영비는 13억원, 상주 인력은 13명이고, 제주 센터 역시 9억원, 13명에 불과하다. 센터 운영비의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트라우마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국힘 "계엄령 준비 의혹은 가짜뉴스"

이재명 대표 회담 모두발언 반박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발 가짜뉴스"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가 지난 1일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공개 발언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관련해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근거를 제시 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민생 협치를 모색해야 할 자리에서 근거 없는 계엄령 선동 발언을 불쑥 던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근 독도 지우기에 이어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짓 선동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가 보기엔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며 "재판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재판에 참석해 판결이 선고되면 아마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비꼬았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거대한 프레임을 빌드업하는 것"이라며 "10월부터 야당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니 '계엄령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거짓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공개 발언은 일부 사람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피해망상적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며 "가장 저급한 형태의 정치"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후쿠시마 괴담은 상대를 친일로 매도하기 위함이고, 계엄 괴담은 독재로 매도하기 위함"이라며 "드라마 '왕건'에서 독심술로 '마구니' 사냥을 즐겼던 궁예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안도걸 "尹 정부, 재정 돌려막기 이자 7867억"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지급한 재정 돌려막기 이자가 7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3432억원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4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무분별한 부자감세로 7월까지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8조8000억원 감소해 연간 20조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상반기 일반회계 지출은 예산대비 58%로 전년(53.9%)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를 메꾸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차입금' 누적액이 1~8월 127조원에 달한다. 1~8월 한은 차입금 누적액은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117조6000억원) 총액을 9조5000억원만큼 초과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 수치다.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남은 잔액만 15조4000억원에 달한다.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정부가 급하게 돈을 쓰다보니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한은에 1291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전년 같은 기간(1141억원)보다 13%(150억원) 많은 금액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106억원)보다는 무려 11.5배나 많은 금액이다.

/오광록 기자 kroh@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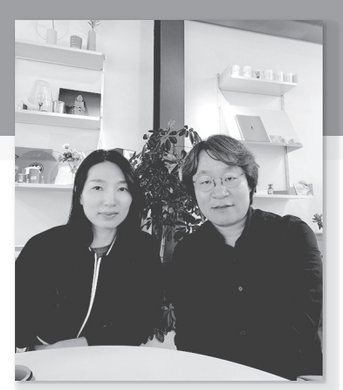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 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